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부활절 메시지

고난의 밤이 종료하고 주님께
서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날
이 밝았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십자가에서 못박
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어떤 분
이신지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
수천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
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
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말해
주는 사건이다. 승패가 항상 교차하
는 인간 사회에서는 힘있는 자가 이
기는 것이 상식이지만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더구나 옳은 것
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가
오히려 꾀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진리의 전쟁사에서는 진리편에
선 자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있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인처럼 죽으시고 범인처럼 장사되어
실패한 자 같았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보이셨다. 불의가 행해
하고 정의가 침묵한다해도 우리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의와 진리는
잠깐 가둘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간 구원의 완성을 보
증하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삼으시
어 우리의 부활을 확약하신 것이다(고전15:20).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
로 인해 이미 다시 살았고, 비록 날마다 후패하여가지만 우리의 육신도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의 부활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증거요,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사건이며,
우리의 영생을 확증하는 표식이다.



이종윤(목사·당회장)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 안에
서 마지막 날에 온전히 다시 살리
실 것이다(살전 4:14).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
을 확증하는 표식이 된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죽음과 더불어 소멸
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이 영원하
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이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가 홀연히 변화
하는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전 15:51 ~ 55).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뿐만이 아
니라 또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
리는 새롭고도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세에의 영원한 소망이
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새 기쁨을 누린다. 그 기쁨이란 세
상이 주는 것같이 아니한 기쁨이
다. 나아가 우리는 부활을 통해 새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어
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
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도 두
렵지 않게 된 능력이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출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장래
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등 모든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무덤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만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영원히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
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1994년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새벽예배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부활주일 I, II, III 예배에 성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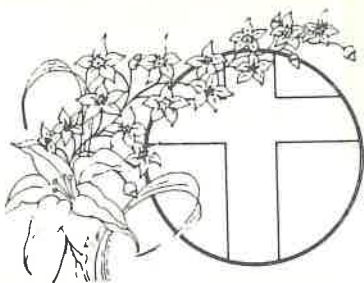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으로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렸다.
또한 부활주일에 예배로 드리는 I, II, III 예배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부활절 찬양예배 “왕의 왕”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오늘 저녁 5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대호 장로, 지휘: 박정선
집사, 반주: 조은주 집사)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예배로 드린다.

“왕의 왕”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부활절 찬양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찬양은 제I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제II부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자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부활절 단상

고난과 영광

이만열

(협동전도사·청년부 지도)

아버지 영전에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최형열

(집사, 할렐루야·베들레헴·시온 찬양대원)

엄동설한에 북풍한설이 불어닥칠 제면, 저런 고약한 시절이 언제 끝나나 하는 기대감이 추위 속에서 문득 문득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봄철 따스한 햇볕에 훈훈한 봄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그 을씨년스럽던 날들은 좋은 추억거리로 남게 된다. 나는 부활절이 겨울에서 봄철로 접어드는 계절의 문턱에 자리잡고 있음을 꼭 의미깊게 생각한다. 때로는 그 때가 뜻하는 상징성이 부활절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준다.

겨울동안 땅도 식물도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지만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날 쯤이면 땅도 숨을 쉬고 뿌리를 내려 이제 싹을 틔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드디어 다시 살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생명의 환희를 더불어 누리자고 그 푸르름을 점차 더해간다. 겨울과 추위로 상징되는 고난은 그래서 봄과 따스함으로 대비되는 부활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만물의 소생의 이치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쓰라림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부활의 전제인 고난은 저 넘어 부활의 찬란함으로 이끄는 터널의 어두움이다.

나의 이기적인 신앙은 지금까지 부활의 영광은 사모했지만 거기에 앞서 꼭 겪어야 할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예수님과 더불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와 함께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치열성이 없이는 누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안이한 삶으로, 입으로만 고난을 말하고 실제로는 영광을 바라면서, '고난과 부활'의 양면성에 두다리를 각각 걸쳐 놓고 편리하게 생활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나의 삶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일 수 없다. 이전까지의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다시 살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를 살려준 이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때마다 스스로 부활한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어붙은 대지가 생동하는 올해 3월 초,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속에 아버지께서 소환되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 하셨지만 그렇게 갑자기, 속히 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는가. 3년 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병상에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어, 그 일로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기만 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국의 그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남은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 믿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리라. 잠깐 이별의 애석함이나 품 보다는 만남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쏟아 부어 주시니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중언삼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할이다.

주일 예배 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성도들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힘차게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시며 기뻐하던 모습을 이제는 조용히 멈추셨다. 그러나 장주께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시어 함께 손잡고 걸으며 기쁨에 젖을 것을 생각하니 이또한가. 벅찬 일이다. 머언 남쪽까지 달려와 우리 가족 위로해 주던 잊지 못할 얼굴들! 이번에 보여신 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위로를 통해 다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에 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도 소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 힘을 따라 또 한 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11:40) 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믿으며...

부활절에는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새 생명을 기념하며
우리가 필요한 곳에
새 생명이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부활 체험

최병호

(목사 · 5, 6교구 지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날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는 자는 모두 부활을 체험한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마침내 우리는 모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 주를 보지 못한 눈이 열렸고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렸고 거룩한 말을 하지 못하던 병어리가 입술이 열렸으니 이것이 기적이요 부활인 것이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예배를 통해서 부활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부활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갱신을 요청하며 민족 교회와 우주 속의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끈다. 아직도 세계 곳곳 어두운 곳마다, 그늘진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소망없는 곳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된 부활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은주

(집사 · 유치부 교사)

시한부종말론자들로 떠들썩 했던 때에, 그들의 주장이 불발에 그치자 온 매스컴들은 비웃듯 보도하였다. 그 이후 사람들은 시한부종말론만 비웃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마하신 예수님의 약속조차 농담처럼 여기게 되었다. 한동안 만연했던 그같은 사회 풍조를 바라보며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구나’ 싶어 소름이 끼쳤다.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끝만 조금 다르게(異端?)함으로써 진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

오늘의 나를 넘어뜨리곤 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게 해서 지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게 한다. 목회자세미나, 키퍼세미나, 흥제작전 등 교회 행사의 그 귀한 본래 취지보다 현상적인 자랑거리를 앞세우게 해서 공허하게 만들고, 횡수를 거듭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며 시간과 체력을 소모할 뿐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여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우회적으로 공략한다.

이렇듯 주님의 마음을 자주 잊어버리는 내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넘어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겔에서 모시면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련만 주님이 돌아가시자 뿔뿔히 흩어졌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오히려 의아해하며 맞이하지 않았던가.

어찌했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구름타고 다시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래서 영광스런 부활절 아침에, 사탄의 거짓말에 자주 속는 나약한 내 모습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 놓고 자문해 본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과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2,3)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하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자 못된 신하에게 집과 재산을 빼앗긴 로잘린드 부인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추위와 피곤으로 지친 부인이 당도한 마을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선량하여 부인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에 부인은 계속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 그 당시 닭이 매우 희귀한 새였는데 로잘린드 부인이 정착한 그 마을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었다.

부활절이 되었을 때, 로잘린드는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로잘린드 부인은 그 동네에는 닭이 없었으므로 아이들에게 달걀을 선물하기로 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각자 새집을 하나씩 지어 놓고 그 자리를 잘 봐두고 오세요”

아이들이 새집을 만들고 돌아오자 준비한 맛있는 요리를 먹게 하고는, 숲에 들어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집에 마다 예쁘게 색깔한 달걀을 하나씩 놓아 두고 왔다.

“자 -,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만든 새집에 다시 가서 무엇이 있나 보세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손에 쥐어진 달걀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 주시느니라’ 라는 로잘린드 집안의 가훈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상 당해 쓰러져 있는 병사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극진히 간호하며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달걀을 주었다. 달걀을 받아 드는 순간 병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달걀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 라는 자기 집안의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부상으로 돌아와 아내를 찾아 헤매던 병사는 부활절에 선물한 달걀로 인해 아내를 다시 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그 후 부활절 때마다 부인은 달걀에 색깔을 해서 나누어 주었고 그 후 오늘까지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 풍습이 전해 오는 동안 달걀이 잘 깨지기 때문에 삶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이 어두운 세상

고생 좀 하고 사는 게

하나도 싫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법.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해도

다양 용서받고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도대체 무얼 한탄한단 말입니까?

부활절을 맞는 교회학교 소식

- * **유년부** - 부활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한다. 유년부의 4월은 「총동원의 달」이다. 골목전도, 축호전도와 교사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를 연구하고 실천할 것이다.
- * **초동부** -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한 드라마 예배를 드린다.
- * **중동부** - 지난 주일 1과 ~ 11과까지의 학습 평가회를 가졌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중동부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달걀을 나눈다.
- * **대학부** - 8개의 조가 개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순서를 가진다. 어떤 조는 찬양으로, 어떤 조는 성극으로...
- * **청년부** - 고난주간에 어려운

형제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한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랑부」를 방문하여 사랑과 함께 달콤한 사랑을 나눌 것이다. 어제(2일)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회년선교회」를 찾아 달걀을 나누며 위로했다.

- * **사랑부** -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체아에 관한 실제적 현상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새가족부** - 100%출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새가족부에서도 장식한 달걀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새가족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부활 - 우리 삶의 근거, 전도의 원동력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지배하였고 전도의 원동력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향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혔으니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침통해 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빼앗아 간 사건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물거품이 되고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도 아니며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것임에도 나날이 회미해져가지만 하는 부활의 기쁨.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조차 쇠퇴해지는 부활의 감격을 걱정하기도 한다. 큰 돌로 무덤을 막고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켰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왕성해 갈 것이다.

부활의 이 기쁜 아침, 우리는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전도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자.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5학기목회자세미나 개강 현장 스케치



지난 3월 28일, 제 5학기 목회자세미나가 「강해설교와 영적 갱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YMCA 대강당에는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시작 전과 휴식 시간에 서로간에 우정어린 인사들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은 목회자세미나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목회자들간의 친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영원을 위해 일시적인 것들은 포기하기로 하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갱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습에서 한국 교회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주간 계속될



이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 4월 17일 목회자세미나 ■

- 제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 제2교시 / 연언자들의 설교와 영적갱신 (민영진 목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길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 갱신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책임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4.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지켜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